

# 방사광가속기 등 핵심과제 해법 모색

### 김영록 전남지사, 스웨덴 등 유럽 3개국 순방

### 신안 해상풍력단지 기반 구축 등 성과 주목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스웨덴·덴마크·스페인 등 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올해 전남 도정 3대 핵심과제와 연계해 유럽 3개국을 6박 8일 일정으로 찾는다.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전남형 일자리 사업인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 구축이 목표다.

김 지사는 순방 기간 스웨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연구소장, 덴마크 에스비에르 항만청장, 스페인 바스크 주지사를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첫날인 13일에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전남 유치와 관련해 2016년 세계 최초로 해당 시설을 구축한 맥스 포(MAX-IV) 연구소를 방문,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기초과학 연구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전남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집중하고 있다.

14일에는 덴마크 데니스 졸 페데젠 에스비에르 항만청장을 만나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폭포 신항 배후단지 구축·해상운송지원 전용부두 조성



김 지사 청계농공단지 방문

등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15-16일에는 덴마크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과 스페인 발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찾아가 남도 문예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미술품 설치 전시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이어 16일에는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의 이니고 우를클루 주지사를 만나 폐광으로 침체했던 발바오시에 구겐하임미

술관을 유치해 연간 13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로 변모시킨 노하우를 듣는다.

또 2015년 기후변화 파리총회에서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조한 이니고 우를클루 주지사에게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여수 유치에 지지를 당부할 방침이다. /정근산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0일 무안군 청계면 청계농공단지에서 치키펀티, 통다리바베큐, 무안양파달걀비를 생산하고 있는 닭고기 전문회사 ㈜금화를 방문, 이순준 회장으로부터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꼼짝마”

### 상품권장 단속 강화...농어민공익수당 지급 예정

전남도가 지역화폐 부정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행복지역화폐'는 2019년 1,108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올해 2,534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농어민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해 발행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도는 최근 시군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반면 올해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맹점 확보에 집중, 시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할인율은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10%를 적용할 경우 특별기간에 한하며 행정안전부, 도와 사전 협의 후 가능하다.

개인별 월간 구매 한도는 평상시 70만 원, 특별 기간 100만 원을 최대

로 하되, 시군별 조례에 따라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가맹점 환전 한도 역시 시군별로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

상품권장 등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 현장점검,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시군 인력을 활용한 가맹점, 사용자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취소,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류 발행의 단점을 보완한 카드, 모바일 발행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불법 유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기자

## 시, 지하수 이용 '클린로드시스템' 구축

### 비산먼지 제거·열섬현상 해소 기대

광주 금남로와 상무대로에 도시철도 1호선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이용해 도로를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이 구축됐다.

광주시는 동구 금남로의 문화전당-금남로4가역 0.52km 구간과 광산구 상무대로의 극락교-광주중정역 3.5km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사업'의 2개 구간을 준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해 놓은 사수 노즐을 통해 유출 지하수를 분사해 도로를 세척한다. 극락교-광주중정역 구간은 클린로드 설치 단일구간

으로 전국 최장 구간이다. 시는 운전자 안전을 위해 해당 구간 시작점에 클린로드 시스템 가동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고, 자동제어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온도와 습도,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상관측장비도 설치했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폭염에 대비해 오는 5월 이후 운영할 예정이다. 도로에 분사된 유출 지하수는 폭염특보 발효 시 도로 표면의 온도를 낮추고,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 먼지를 세척해 대기 질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애란 기자

## 이용섭 시장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없어”

### 동생·부시장 등 기소에 “이유여하 막론 송구”

이용섭 광주시장은 자신의 동생과 공무원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남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은 적극 행정이자 소신 행정의 결과이며, 이는 공직자의 책무다”며 “자체 감사는 시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적절한 절차였으며,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어떤 사업이나 공사에도 불필요한 지시나 개입을 한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도 어떤 부당한 지시도 없었음이 밝혀졌다. 공직자 누구도 금품수수나 업체 유착이 없었고, 동생은 민간공원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동생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동생은 2017년 3월 D 철강을 설립했고 4월 1일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했다”며 “이때 저는 무직자였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은 5월 16일이었다. 동생이 형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선수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검찰은 광주시가 감사 과정에서 호반건설의 감정 사항(-5점)을 발견했지만 이를 제외한 사업자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감정 대상이 아니며 설명 감정이 적용되더라도 경쟁 기업과 이미 5점 이상의 격차가 있어 사업자 선정 순위 변동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익일체지향인 올해 6월까지 민간공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심의 허파를 지키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완벽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8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계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 또 호반건설로부터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은 혐의(특가협상 알선수재)로 이 시장의 친동생을 재판에 함께 넘겼다. /황애란 기자

## 도, 정보화마을장터 운영

### 17일까지 도청 윤선도홀

전남도는 설을 맞아 정보화마을에서 생산한 우수 농수산물들을 판매하는 '2020년 설맞이 정보화마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도청 윤선도홀(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직거래장터에서는 배, 사과, 한라봉, 귤, 감, 굴비, 버섯, 나물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건어물, 해산물, 잡곡류, 선물세트, 발효 및 절임 가공식품 등 120여 종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장터에서는 구매 고객을 위한 무료 시식회를 비롯해 향운권 추첨, 구매 금액별 장바구니, 에코백, 마을 특산물 등 다양한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돼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설맞이 직거래장터가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지역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도시민과 생산자와의 교류 장을 마련해 정보화마을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설 감사 선물을 전남 정보화마을에서 알뜰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 임야

바로합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 투자자모집

금매물/경매 입찰·낙찰물건 법적으로 보장. 010-3605-5000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000@hanmail.net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 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전남 여수시 남면 유송리372번지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시유: 사유재산권보전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후 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 안치장소: 여수시립영락공원남광당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 190)
7. 안치기간: 10년
8. 신고 및 연락처: 전남 여수시 여항단지53 김창선 (010-3623-2712)
9.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10. 기타사항: 분묘 개장 공고 이후 상기 분묘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공고인 김창선 010-3623-2712

## 부실 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 등 각종 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영업직: 신입·경력직 모집 | 채권추심직: 신입·경력직 모집 | 법무사 및 금융계 은퇴자 특별대우!

### 새한신용정보(주)

062.227.0337 | 010.3602.6324  
광주지사 | 광주지방법원 후문 앞

## 도와주는 아바에서 함께하는 아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가 함께 합니다

계 11명은 인구의 날

##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회환 3만 | 근조회환 3만

### 경조회환 6만원

시의 기타외지역 추가비용 발생

Tel, 062) 233-9961 Fax, 672-9961 |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